

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 연구

조민형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목차

- 1 들어가며
- 2 남북한 체제에의 양비론과 ‘대중’의 구축
- 3 상호부조적 공동체 구상과 ‘모랄’의 제시
- 4 사적 욕망의 정치성과 진정한 ‘사랑’의 추구
- 5 결론

1 들어가며

대중소설 작가로서 김말봉의 문학관이란 “자신 혼자만이 ‘엔조이’하는” 문학에서 벗어나 대중문학과 순수문학 간의 위계를 전복한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¹ 이러한 김말봉의 작품들은 단지 사회상을 재현하며 탈정치적이고 나아가 때론 현실을 왜곡했다고 비판되거나, 적극적인 정치로 나아가지 못하며 현실 인식이란 소박한 차원에 그쳤다고 여겨지거나 셋째, 김말봉은 ‘사회주의 코스프레’를 했던 우익 작가나 다름없었다고 평가되었다.

이처럼 김말봉의 작품들은 정치 사상적으로 주변부에 놓이는 아나키즘의 특성에 따라 ‘아나키스트’라는 사상적 정체성과 유리된 채로 독해되었다. 나아가 김말봉의 사상은 일관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성숙하지 못했다는 관점으로 이어졌다.² 그러한 연구 관점은 아나키스트 김말봉이 ‘이미’ 해방기에 남한 사회에 잔존하기를 선택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단지 그의 종교가 기독교이고, 한국 최초 여성 장로라는 점에서 그를 ‘우파’와 연관 짓는 것은 비약이다. 나아가 이들 연구의 김말봉을 통속성과 여성성, 모성으로만 읽으며 정치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중소설가’로서 김말봉은 곧 ‘젊은’ ‘남성’ ‘엘리트’로만 구성되어온 “오이디푸스적 계보”로서 “부계 서사”³에서 쉽게 배제될 수 있는 존재였음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본고는 김말봉이 유림의 독립노동당에 가담하여 김말봉은 부녀부장이었다⁴는 사실에 입각하여 김말봉의 대중소설에 나타난 아나키즘적 상상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아나키즘’의 ‘아나키’는 없다는 뜻의 ‘an’과 우두머리, 강제권, 견제 따위를 의미하는 ‘archi’의 합성어로서 강제 권력을 배격한다는 의미

1 「대중잡지의 현황과 진로 좌담회」, 『경향신문』, 1958.2.12.

2 진선영, 「한국전쟁기 김말봉 소설의 이데올로기 연구」, 『겨레어문학』 제55집, 2015, 336쪽.

3 연남경, 「현대비평의 수립, 혹은 통설의 탄생」, 『한국문화연구』 제36호, 2019, 57-58쪽.

4 박노석, 「끝뫼 아주머니와 나」, 『김말봉의 소설과 사회』, 정하은 편, 종로서적, 1986, 37쪽.

다.⁵ 즉, 무정부주의는 안-아르케(an-arkhe), 권력도 없고 주인도 없는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지 ‘무질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⁶ 무정부주의자들은 ‘무-지도자’, 즉 ‘권위자가 없는’ 세계를 지향하며 권위에 저항한다.⁷

아나키즘이 공산주의와 함께 사회주의라는 범주로 묶이지만, 둘은 크게 구분된다. 공산주의자로서 마르크스는 국가를 점령함으로써 파괴해야 할 대상으로 보았다.⁸ 이처럼 공산주의는 산업화·근대화를 경험한 물질세계에서 프롤레타리아로서 산업 노동자들에 중심을 두었다. 명확한 계급의식을 지닌 공산주의와 달리, 아나키즘은 특정 계급에 속하지 않는다.⁹ 아나키스트들은 역사발전에서의 진보적 내적 논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나키스트들에게 중요한 성장은 물질적 요인보다 도덕적 성장이었다.¹⁰

‘아나키’를 하나의 정치적 입장으로 격상시킨 것은 조제프 피에르 프루동이었다.¹¹ 프루동은 공산의 사회가 말하는 “소유제의 폐지”가 국가의 강압을 낳고 자유의 위축을 가져올 것이라 보며 “소유제의 개혁”을 택했다.¹² ‘아나키’는 “의지의 통치를 용납하지 않으며 단지 법의 권위, 즉 필연의 권위만을 받아들인” 것이다.¹³ 인간의 육체는 정신과 영혼과 함께하며, 도덕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나아가 그에게 ‘자유’란 “이성과 능력을 향유하며 열정에 눈이 멀지 않고 두려움에 강제되거나 방해받지 않으며 허위에 기만당하지 않는” 것이다.¹⁴ 이어 포르트르 크로포트킨은 동시에 크로포트킨은 20세기 초 한중일 세 나라에도 고루 수용되며

-
- 5 「“최대의 민주” 확립」, 『조선일보』 12월 7일. 김성국, 앞의 책, 152쪽에서 재인용.
 - 6 자끄 엘릴, 이창현 역,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대장간, 2011, 73쪽.
 - 7 알버트 린데만, 오주환·진원숙 역,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3, 11쪽.
 - 8 E.H.카, 이태규 역, 『미하일 바쿠닌』, 이매진, 2012, 603쪽.
 - 9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이지선·김지은 역, 『아나키즘의 역사』, 자음과 모음, 2003, 50쪽.
 - 10 알버트 린데만, 앞의 책, 171쪽.
 - 11 장 프레포지에, 앞의 책, 88-89쪽.
 - 12 이용재, 「해제-프루동과 소유의 사상」, 『소유란 무엇인가?』, 아카넷, 2013, 459쪽.
 - 13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이용재 역, 『소유란 무엇인가?』, 아카넷, 2013, 409쪽.
 - 14 위의 책, 202쪽.

큰 영향력을 발휘한 『상호부조론』의 저자이다.¹⁵ 그는 인간의 본능으로서 도덕에 따라 ‘인간의 본질적 요구인 원시적인 연대성적 동일감’에 주목한다.¹⁶ 그렇기에 크로포트킨은 서로를 돕는 방식으로 인류가 도덕적으로 진화할 수 있는 방식들을 긍정하며, 기독교적 윤리의 ‘공감’에 주목하기도 한다. 크로포트킨은 만약 종교가 인간 스스로 이해와 그의 도덕적 본성을 이해하는 데에 궁극적인 도움이 된다면, 근본적으로 종교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¹⁷

아나키즘 역사에서도 주로 다루지지 않았던 18세기 프랑스의 샤를 푸리에에는 이상사회로서 ‘팔랑스테르(팔랑주)’를 제시했다. 신흥 계급으로서 부르주아를 비판하는 푸리에에는 ‘열정적 인력’을 통하여 팔랑스테르라는 유토피아를 구축할 수 있다고 규명하였다.¹⁸ 푸리에에는 ‘도덕적인 폭력’에 의존하여 문명화된 사회가 정념들을 억압하고, 조화를 이를 다양성을 해친다고 규명한다. 이를 통해 푸리에에는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모든 금기가 사라진 사회, 삶 속에서 권력을 행사하려는 욕구와 무관한 해방된 건설을 꿈꿨다.¹⁹

젠더와 섹슈얼리티, 사적 관계를 통한 아나키스트 공동체 형성의 지향은 18세기 푸리에에 이어 20세기 미국의 아나키스트로서 엠마 골드만으로 이어진다. 엠마는 결혼시장에서 벗어난 사랑을 꿈꾸라고 복돋으며, 사랑에 대한 개인적 요구를 사회적 요구로 확장하며 동시에 사회적으로 공인된 사랑이 보잘 것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엠마의 입장은 부르주아 신여성들이나 여성참정권 운동세력들과 분명히 구분된다.²⁰ 엠마는 인간에 대한 신뢰 속 자유로운 개인의 잠재력이 발휘될 때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한 것이다.²¹

15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중국사연구』, 제39호, 2005, 231-232쪽.

16 김택호, 『한국 근대 아나키즘문학, 낯선 저항』, 월인, 2009, 112쪽.

17 William O. Reichert, “Proudhon and Kropotkin on church and state”, *A Journal of church and state* 9-1, 1967, p.94.

18 하영진, 「샤를 푸리에의 유토피아」, 『현대사상』 제5호, 2009, 24쪽.

19 변기찬, 「샤를 푸리에의 정념」, 『석당논총』 2011, 제49호, 262-265쪽.

20 캔데이스 포크, 이혜선 역, 『엠마 골드만: 사랑, 자유, 그리고 불멸의 아나키스트』, 한얼미디어, 2008, 660-662쪽 참조.

21 구승희, 「해제-우리는 왜 엠마 골드만을 읽는가?」, 『저주받은 아나키즘』, 우물이 있는 집,

한편 김말봉의 아나키즘을 따지기 위해서는 ‘대중’을 재독해할 필요가 있다. 김말봉은 대중을 “당대의 역사적 경험에 근거하여 의식을 공유하는 실천 지향적 집합체”로 여겼다. 이런 김말봉에게 대중문학적 글쓰기란 아나키즘이라는 사상을 토대로, 혼란한 역사 속에 참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대중’과의 호흡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대중’을 기존의 ‘민중’으로 전환한 것인데, 이는 역으로 ‘민중’ 또한 ‘대중’으로 전환 또한 가능하다. 그리고 대중은 자아와 상호 발전적 관계를 맺으며, ‘대중’을 체험한 개인은 진정한 해방을 얻을 기회를 찾는 것이다.²²

이에 따라 ‘대중’, ‘모탈’, 그리고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각 장에서 김말봉의 대중소설의 아나키즘적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김말봉이 처했던 남북한 체제로 대변되는 정치·경제적 상황에서 대중을 구축하고자 했던 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상호부조론을 토대로 한 ‘모탈’을 대중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던 김말봉의 작가 의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4장에서는 사적 영역으로 여겨졌던 욕망의 발현을 통한 완전한 해방을 꿈꿨던 김말봉이 천착해 온 소설의 메인 플롯으로서 사랑에 집중한다.

2 남북한 체제에의 양비론과 ‘대중’의 구축

투쟁방식과 과도기로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불세비즘과 아나키즘은 구분되지만 외에 공산(公産), 생산수단의 공유, 사람의 개성과 자유회복, 계급해방 등을 논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니기도 했다. 따라서 아나키스트들은 불세비키와 일부 결합을 이루기도 했었다.²³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긍정적으로 수용됐는데, 이는 반제국주의에 대한 의식 때문이었다. 식민지 조선에 공산주의가 받아들여진 맥락은 당시 반제국주의를 옹호해주는 국가로서 사회주의-마

26쪽. (저자 및 역자 삭제)

22 군터 게바우어·스벤 뤼커, 엄정용 역, 『새로운 대중의 탄생』, 21세기북스, 2020, 36쪽, 83-85쪽, 104-105쪽.

23 정혜정, 「식민지 조선의 러시아 사회주의 수용과 동북아 연대」, 『탈경계인문학』 제 27호, 2020, 154쪽.

르크스 레닌주의 소련을 통해서이다.²⁴ 개별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발전 정도와는 무관하게 민족자결주의 운동은 제국주의 체제를 침식한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전복과 사회주의 혁명 운동이라는 점에서 레닌은 민족자결주의를 옹호했다.²⁵

이러한 맥락 속에서 김말봉은 계급 의식을 일부 수용하지만, 아나키스트로서 태도를 잃지 않는 면모를 보여준다. 『밀림』(1935-1938)은 기존의 공산주의에서 착취하는 부르주아—투쟁하는 프롤레타리아라는 이분법적 계급관을 가졌던 것과 달리, 김말봉은 인류를 위해 희생하는 유산 계급(동섭)—굶주림에 못 이겨 타락하는 무산 계급(상만)이라는 이분법을 제시한다. 하나의 서사 전개는 축으로 동섭의 사상적 고민을 채택한다. 지적된 바와 같이 『밀림』에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이 지루할 만큼 자세히 묘사”될 뿐만 아니라 동섭은 자신의 부르주아적 안락한 삶이 노동자들의 고통을 통해 가능했음을 깨닫고 괴로워한다.²⁶ 이는 『밀림』 자체가 전장에서 죽은 사람과 달리 공사장에서 죽은 사람들은 개미 한 마리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상황에 대한 김말봉의 문제의식을 토대로 시작된 소설이기 때문이다. 개인의 결투 혹은 투쟁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회의 부조리함은 궁극적으로 상만이 세계의 질서에 굴복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후 1940년대에 소련은 자치적 발전을 열망했던 소련 소수 민족을 분쇄하며, 스탈린은 권위주의적 비자본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스탈린이 유럽에 닥칠 전쟁에 집중하던 1930년대 이후 소련의 제3세계 직접 개입은 급격히 줄어들었다.²⁷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은 소련과 완전히 대립적인 관계에 놓이지 않았다. 1943년 11월 28일 테헤란 회담에서 스탈린은 독일 패전 후에 대일 전쟁에 참가하기로 결정하는 등²⁸ ‘수비적 태도’의 연장으로서 반제국주의를 유지했기 때문이다.

24 에드먼드 윌슨, 유강은 역, 『핀란드 역으로』, 이매진, 2007, 610-611쪽.

25 노경덕, 「제 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역사비평』 제 245호, 2020, 44쪽.

26 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39집, 2013, 331쪽.

27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역, 『냉전의 지구사』, 예코 리브르, 2020, 107쪽.

28 하세가와 쓰요시, 한승동 역, 『종전의 설계자들』, 메디치, 2019, 65쪽

실제로 해방기의 아나키스트들은 소련을 조국으로 보지 않고 사대적으로 흘러가지만 않는다면 공산 진영과도 제휴할 수 있다는 입장을 펼쳤다.²⁹ 그 가운데 김말봉은 반공과 전체주의 논리를 내세우는 제국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지녔고 이들 열강들과 소련 사이 권력 관계를 파악한다. 이는 해방기 단편 「낙엽과 함께」(1949.3.)에서 보이는 김말봉의 소련과 ‘붉은 것’에 대한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설 속 우익 창호와 좌익 근호 사이 도덕적 위계가 설정되지 않은 채 동등하게 다뤄진다. 한편 주목해야 할 점은 김말봉이 돌순은 창호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설정을 채택했다는 점이다. 조선 민족을 죽이는 특정한 정치 이념 혹은 세력은 공산주의보다 친미적인 우익 세력으로 표상된다. 이는 한국 전쟁 전까지 조선에게 ‘더 강압적’인 외세에 소련보다는 미국이 더 가까웠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은 루즈벨트의 연설(1942.11.15.)에서도 알 수 있듯 한국의 독립과 함께 미국이 아버지 나라의 역할을 할 것을 논했다. 이어 1945년 알타 회담에서 루즈벨트는 한국이 20-30년의 신탁 통치가 필요하다고 논했다. 이는 신생 독립 국가에는 교육과 문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³⁰

그러나 한국전쟁 이후 김말봉은 변화된 소련의 입지를 수용하며 소련을 ‘제국’으로 독해함과 동시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다. 『별들의 고향』(1950) 속 소련은 독일, 이태리, 일본이라는 ‘전체주의’이자 ‘반공주의’ 제국들과 역설적으로 동일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김말봉의 공산주의에 대한 입장차는 지배와 제도, 권력에 반대로서 아나키즘이라는 큰 틀에서 오히려 일관된 태도로 독해된다. 김말봉의 관점에서 좌익들은 자신의 사상에 몰두하여 그 어떠한 도덕적인 성찰도 이뤄내지 못하는 점에서 모순적이며 비판되어야 한다. 이처럼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 대신 계급만을 염두에 두는 공산주의의 한계점은 『별들의 고향』의 경진을 통해 극단적으로 드러난다. 그런 경진과 대조되는 것이 송난인데, 경진은 어머니마저 저버리는 사람이라면 송난은 어머니가 받은 멸시로 인하여 공산주의자가 된다. 이는 김말봉의 비판의식이 ‘반공주의’으로는 귀결되지 않는 면모로 이어진다. 문제는 사상이 아니라, 감정과 영혼의 유무인 것이다.

29 이문창, 『해방 공간의 아나키스트』, 이문사, 2008, 269쪽.

30 신복룡, 「한국 신탁통치의 연구」, 『한국정치학회』 제 27집 2호, 1994, 28-29쪽.

한편 신탁통치로 이분화된 한반도에서 선택이란 곧 좌익과 우익으로 대변되는 북한과 남한 사이 제한적으로만 주어진 것이었다. 이러한 시대에 등장한 김말봉이 소속된 ‘독립노동당’은 ‘아나키스트 사회 건설’이라는 목적 하에 노동청년총연맹과 함께 활동하며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민족의 자주적 정부를 세우기를 꿈꿨다.³¹ 이때 해방기 아나키스트들은 임정 세력과 정치적 연합전선을 유지했었다.³²

남한 사회의 토대가 되었던 임시정부의 노선이란 1954년 개헌으로 경제적 균등을 향한 지향이 깨지고 반공주의가 확산되기 전까지 미국과 소련식 정치이념을 모두 견제하는 것이었다.³³ 동시에 남한의 민주주의는 좌우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다. 다만 ‘삼균주의’라 대표되는 ‘균등’으로서 좌우 합작적 지향이 있었다. 임정의 삼균주의를 토대로 한 ‘건국강령’은 이후 1948년 제헌헌법에서 농지개혁과 중요 산업의 국영·공영화, 천연자원의 국유화와 같은 공(公)개념의 경제조항들을 포함한다. 삼균주의는 곧 ‘토지개혁’의 필요성과도 연관됐다.³⁴

김말봉은 소설 『짚레꽃』(1937)을 통해 해방 후 남한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지에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땅의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지주’라는 것이다. 일제의 식민지 지주제는 경제적인 면에서 농민들의 삶을 뿌리째 뽑고 공동체를 해체하려 들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한국의 농지개혁은 곧 일제시기 농민문제를 해결하는 역사적 과제로 제기되었다고도 볼 수 있다.³⁵ 무엇보다 공업 발전을 중시하는 ‘자유주의’와 구분되는 ‘농업지향’의 면모는 『별들의 고향』의 창열이 농업을 배우겠다는 의지에서 드러난다.

그러나 자유주의화가 진행되며 도시화·산업화의 문제는 본격화된다. 『푸른

31 이호룡, 『한국의 아나키즘-운동편-』, 지식산업사, 2015, 445, 450쪽.

32 김성국, 『한국의 아나키스트 자유와 해방의 전사』, 이학사, 2007, 184쪽.

33 정병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戰後構想과 還國」, 『한국독립운동사연구』 52, 2015, 188, 202쪽; 조석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기초한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그 좌절」, 『국제경상교육연구』 제 6권 4호, 2009, 108쪽.

34 정병준, 앞의 글, 185-186쪽.

35 정병준,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역사비평』 제 65호, 2003, 151쪽.

날개』(1954)에서 사건이 벌어지는 배경이자 김말봉이 가지는 문제의식의 중심은 도시이다.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식 속에 ‘매국’이라는 ‘식민지 아비투스’로 이어진다. 나아가 『생명』(1956-1957)에서 전후 복구기 정부가 ‘광산주’나 ‘영업주’를 성장시켜 국가 재산을 독점한 이들은 ‘배신자’와 ‘모리배’라고 비판된다. 이러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김말봉이 내세우는 해결책은 농촌이다. 즉, 자유주의화가 되며 더욱 크게 도래한 서울의 문제들에도 김말봉은 다시금 농촌을 말하는 대중소설을 통해 대중의 구조화를 꿈꿨던 것이다.

3 상호부조적 공동체 구상과 ‘모랄’의 제시

김말봉에게 기독교란 사회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반대와 방해에 대한 저항의 동력이었으며, 아나키즘적 실천의 구심점이었다. 나아가 그가 여성 최초의 장로가 된 것은 그가 지닌 보수성에 대한 입증이 아니라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기독교 제도에 대한 균열이기도 하다. 김말봉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기도 했고, 다양한 기독교 비판적 소설을 집필했다.

이는 『화려한 지옥』(1947-1948)의 남자 주인공 영빈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김말봉은 영빈의 태도를 단지 부도덕함으로 그리는 데에 그치지 않고, 기독교 신자의 모순적 태도로 그려내며 기독교를 비판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채옥과의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장로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성서의 내용은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편견 없는 환대를 강조하는 반면, 영빈은 채옥을 멸시하고 무시했기에 송희에게 살해되고 만다.

김말봉은 도덕적 기원으로서 ‘이야기’가 가진 효용성에 대한 긍정으로서 기독교를 수용하며, 성경의 모든 것이 절대 사실이라고 믿는 보수 기독교와 구분되는 태도를 지녔다. 이는 『화려한 지옥』에서 채옥이 합리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수용하는 방법과 이어진다. 채옥이 마주하게 되는 간호부는 의문을 전적으로 부인하지 않지만, 전적으로 긍정할 수도 없는 가변적 가치로서 ‘역사’의 기록물로 성경을 배치한다.

아나키즘의 관점에서 기독교는 종교이지만 동시에 부도덕한 현실 정치와 권위에 맞서는 저항이자 균열로서 새로운 모랄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그

래서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지 않을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망명녀」(1932)의 결말을 다시 독해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망명녀」의 서사는 순애가 스스로의 구원을 찾아나가는 이야기다. 그 과정 속 윤숙은 순애를 구원하기 위해 힘쓰고, 자신의 연인을 포기하기도 한다. 그 속에서 윤숙은 점점 나아지는 순애에게 공감을 하고, 자신의 고통을 ‘즐겁게’ 이겨낸다. 이어 순애는 “인류의 행복을 위하여 싸우는 문”을 걷는 순애는 사회주의 사상과 종교적 희생을 동시에 실천했다. 즉, 「망명녀」는 순애를 궁극적으로 구원한 것이 종교인지 사상인지를 따지지 않는다. 오히려 소설은 순애의 종교로서 윤숙과 사상으로서 윤 선생님 모두에게 영향을 받아 ‘구원’을 찾았음을 말한다. 즉, 김말봉이 생각하는 정치적 실천은 이론·사상을 바탕으로 인류라는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는 종교적 희생의 가치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밀림』(1935-1938)에서부터 김말봉이 관통하고자 한 주제라고 할 수 있다. 동섭이 세운 공동체가 노동자들이 직접 운영한 농장을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세운 학교, 유치원, 목욕탕, 병원등인 점에서 상호부조론 논리의 실천과 같다.³⁶ 또한 『밀림』은 상호부조 정신의 확장을 보여준다. 인애는 자신의 연적인 자경이 피가 필요한 순간에 수혈이 가능한 유일한 존재였다. 그리고 인애는 자신의 피를 주며 상호부조를 실천하는 존재가 된다. 이후 인애는 자경의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양심의 가책 속에 “성모의 무릎 아래 일생을 바치기로 결심”하며 종교에 귀의한다.(下, 238) 인애를 움직인 결정적인 계기가 양심이라면 그 원동력은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공감이라는 또 다른 모랄인 것이다. 그리고 경쟁 구도에 놓였던 자경과 인애는 오히려 상대에게 동섭을 양보하고 각자의 길을 떠나는 것으로 이어진다.

상호부조는 「합장」(1951.6)에서 어미를 잃고 그 혼한 젖도 먹지 못한 아기 길남과 노파의 모습에서도 발견된다. 아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전신에 부족한 피였다. 그러나 노파의 일가 중에는 피를 뽑아줄 사람이 없었다. 이때 길남을 도운 것은 순히였다. 돈을 주겠다는 노파를 만류하고 필요하다면 얼마

36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 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49호, 2020, 194-195쪽.

든지 자신의 피를 더 나눠줄 수 있다고 말한다. 한편 공동체 의식과 상호부조는 김말봉의 희망원 운동과 이어진다. ‘남녀평등’을 위해 공창을 폐지한 북한과 달리, 심지어 남한 정부의 의원들은 ‘공창’이 ‘대중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공창 폐지의 유예기간을 연기하는 데에 찬성하기도 했다.³⁷ 이에 반하여 등장한 김말봉의 희망원이란 “가장 불행하였던 여인들 공창에 몸을 던졌던 여인들을 모아 그들을 보호하는 기관”이다. 이는 『화려한 지옥』(1947-1948)에서 정민혜가 활약하는 동명의 공간이기도 하다. 정민혜는 상호부조 공동체로서 희망원의 중심인물로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모랄을 토대로 희망원을 운영해나간다는 점에서, 김말봉의 페르소나이다. 정민혜의 희망원 운동은 곧 평등 의식과 용서, 자비를 종교적 신념과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어 소설 속 이상 공간으로서 희망원은 구성원들이 양잠, 양토, 양계 등의 농업 일에 이어 염색, 메리야스, 인형 등의 제조에 이어 타이핑까지 해내는 자족적인 생활을 보여준다. 이는 곧 크로포트킨이 논한 대안적 공동체이자, 상호부조적 공동체의 성격을 보인다. 희망원은 농업과 제조업이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이다. 또한 상호 간의 돌봄 속 아나키즘의 공동체 의식으로서 상호부조 정신을 깨닫는다. 궁극적으로 희망원은 “사람다운 사람”으로 여겨지지 못한 여성들로서 창기들에게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공간이다. 희망원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되었던 여성들을 사회로 동화시키며 기존에 배타적인 사회에 균열을 가하고, 채육을 변화시키기도 한다.

『화려한 지옥』에서 채육이 인신매매 금지령을 듣는 장면은 희망원이 공창들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모든 여성들, 무수한 전재민들에게 열린 공동체여야 하는 이유를 보여준다. 이는 대중들에게 뛰어들어야 하는 이유는 현재 사회의 정부나 국가가 대중들과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부각된다. 대중들은 자신의 삶과 긴밀한 영향을 맺거나 심지어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국가 제도나 그의 변화를 쉽게 인식하지 못한다. 따라서 김말봉은 대중에게 다가가기 위한 글쓰기를 이어갔다. 비록 소설은 대중소설이라는 점에서 허구의 형식이지만, 김말봉은 정민혜를 통

37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록』, 제167호, 1947. 10. 30. 박유미, 「해방 후 공창제 폐지와 그 영향에 관한 연구」, 『역사와실학』 제 41호, 2010, 53쪽에서 재인용.

해 사회 현실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허구의 글이 더 많이 읽힐수록, 독자들은 공창들의 현실이라는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아이러니가 가능하다.

4 사적 욕망의 정치성과 진정한 ‘사랑’의 추구

열정적 사랑을 긍정한 것이 아나키스트들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아나키스트들 또한 열정적 사랑을 강조한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엠마 골드만은 “결혼과 사랑은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말하며 “심지어는 서로 적대적”이라 말한다.³⁸ 결혼은 ‘자유’를 방해하고 ‘의무’를 강제하며 여성이 “단순한 기계로 전락”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엠마 골드만이 “결혼은 죽음에 저항하는 인생의 마지막 절망적 몸부림”이라 지적했다면³⁹ 김말봉은 “세상에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커다란 두 가지”로 “원수를 가진 것”과 “결혼”을 제시했다.([밀립], 下, 285) 나아가 그는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라고 말한다. 그는 약혼 시절 질던 애정이 결혼과 함께 ‘가장’이라는 “엄연한 존재”로 변하며, 연애가 “천 년 전에 무덤으로 들어가”는 상황을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연애의 열정의 지속을 위해 약혼 시절의 꿈을 지속할 것을 말한다. 이때 약혼 시절이란 결혼의 전 단계가 아닌, “부드러운 감정, 수줍은 얼굴과 몸맵시”를 갖춘 “두근거리는 흥분과 긴장” 상태에서 ‘열정’의 상태다.⁴⁰

흥미로운 점은 김말봉의 소설 대다수의 작품에서 연애가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김말봉은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때 김말봉이 함께 언급한 것은 어떠한 부부들이 사랑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들의 삶이 ‘지옥’과 다름없다는 점이다. 결혼이 곧 연애의 무덤이라는 김말봉의 말과 위의 진술을 합쳐본다면, 연인들의 사랑은 결혼의 과정을 통해 그 열정이 소멸되며, 이 과정은 곧 연인들을 지옥으로 이끌어간다는 점이다. 이처럼 김말봉이 결혼을 부정하는 이유는 여타 아나키스트들의 논리의 연장선상으로 살필 수 있을 것

38 엠마 골드만, 김시완 역, 『저주받은 아나키즘』, 2001, 우물이 있는 집, 231쪽.

39 위의 책, 240-241쪽.

40 김말봉, 「미혼인 젊은 남녀들에게」, 『부인』 제 2권 6호, 1947.9.

이다. 문제는 결혼이 제도라는 것이다. 요컨대 이성애 담론과 이데올로기 속에서 결혼은 연애의 완성처럼 여겨지지만, 김말봉은 이를 비롯하여 이성애를 토대로 한 ‘문명 상태’에 균열을 내고자 결혼하지 않기를 택하는 ‘비혼(非婚)’을 서사화한 것이다.

이때 『찔레꽃』은 애정 문제와 서사 진행이 모두 인물간의 혼인 여부를 주제로 하는 서사였다는 점에서 비혼 서사라 말할 수 있다. 수많은 애정의 코드가 있지만, 그중 어느 연애도 결혼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없는 것이다. 요컨대, 김말봉 소설은 성공하는 연애가 없는 연애소설이라는 점에서 그 특수성이 부각되는 것이다. 특히 정순의 자기희생적 결말에서 민수와의 결합을 바라온 독자들의 반응과 달리 “경구와의 연결의 암시”⁴¹로서 계층상승적 욕구에 대한 대리만족으로의 봉합이라는 『찔레꽃』에 대한 해석은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 실제 소설 『찔레꽃』이 선택한 결말은 경구가 정순을 부르는 것으로 완전히 모호하게 처리된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정순에게 경애와의 파혼까지 가정하며 청혼을 해온 민수와 단지 정순의 이름을 부르는 데에 그친 경구의 면모는 대조된다.

그러나 김말봉은 결혼으로 귀결되지 않는 무한한 열정을 서사화하기도 한다. 이는 『푸른 날개』(1954)의 미스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푸른 날개』의 여자 주인공과 반주로서 한영실과 미스현은 결혼에 대한 생각에서 유사점을 지닌다. 예컨대, 한영실은 결혼을 “살기 위해서 하는 취직”으로서 “아르바이트”이자 “순전한 노동”이라 말한다. 결혼의 유경험자로서 결혼과 애정이 연결되지 않음을 말했고 결혼은 오히려 애정에 방해가 된다는 미스현과 비슷하다. 즉, 이에 따라 한영실과 미스현은 김말봉의 여자 주인공에 대한 입장으로서 광명과 반주의 관계도로 독해가 가능하다.⁴² 미스현은 “불타는 연애”의 주체로서 설병국을 절망하다가도, 자신의 운명과 열정, 그리고 사랑 모두를 긍정한다. 그런

41 정희진, 「김말봉의 찔레꽃 연구-서사기법과 독자 흥미유발요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0, 87쪽.

42 한편 主人公의 반주 역할을 하는 女人인들, 이것도 내가 屬한 女人簇 때문인지 바보나 허수아비로 만들 마음은 꿈에도 없다. 亡하되 아름다운 閃光 속에서 悲壯하게 사라져버리는 女人들은 나의 그러한 意圖에서 묘사되는 것이다. (중략) 마치 暗黒이 있기 때문에 光明이 또렷해지는 것처럼. 김말봉, 「女流作家와 女人」, 『동아일보』, 1958.04.24.

미스현은 김상국의 폭력으로 얼굴 전체가 훼손되지만, 영원한 아름다움으로 남기 위해 “육체를 파괴”하는데 이는 ‘망하되 아름다운 섬광 속에서 비장하게 사라져버리는’ 결말로 귀결된다. 이러한 비혼 서사는 반주로서 미스현에 이어 광명으로서 한영실로도 이어진다. 결말에서 한영실이 권상오를 거두며 사랑이 성사될 때조차 그들은 결혼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이는 앞선 서사가 ‘혼사장에담’으로서 전개되었던 것과 대조된다. 이는 김말봉이 비로소 제약 없는 사랑을 하게 된 연인들을 결혼 제도 안에 귀속시키려 하지 않음으로 읽힌다.

한편 돈은 진정한 사랑이 좌절시키는 이유이다. 이는 흔히 김말봉이 차용하기도 한 ‘금색야차’, 즉 ‘장한몽’⁴³ 식의 플롯에서 흔히 드러나는 돈과 사랑의 문제와 결부된다. 주로 돈과 사랑의 갈등이 여성 인물에게 적용되는 구조였다면, 『생명』(1956-1957)에서는 남자 주인공 설병국이 갈등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구분된다. 가난한 선생이자 고학생 동생을 둔 설병국은 돈 많은 유화주와 사랑하는 창님 사이에서 갈등을 겪는다. 이는 유화주와 ‘고용’ 관계를 맺었던 일 때문이다. 유화주는 돈을 명목으로 설병국을 전라 모델과 ‘남첩’으로 활용하며 둘은 유사 성매매적 관계를 맺는다. 유화주가 ‘사회악’ 속의 여성이라는 점은 작품이 짚어내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문제의 반영이기도 하다. 유화주의 설병국에 대한 열정은 이어 설병국이 흥분제를 먹고 전창님을 강간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랑”을 하는 남성은 한 사람도 등장하지 않는”⁴⁴ 설병국은 전창님을 책임지기보다 유화주의 패턴이었던 광산부자 김한주의 딸 김정미와의 결혼을 시도한다.

한편 『질레꽃』에서처럼, 『태양의 권속』(1952) 또한 소설 속 ‘금색야차’를 언급하며, ‘성공적인 사랑을 나누던 두 사람이 어쩌다 곤란을 겪는가’의 서사를 전개한다. 이때 결말에서 상철의 편지가 표면적으로 표상하는 것은 물질적 유혹에 흔들리던 남성이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고자 전쟁터에 나가며 군인으로서 국가에 복무하는 청년이 된다. 그러나 ‘전쟁터’라는 설정은 필연 죽음을 동반한다는 점에서 사랑의 불가능성을 담지한다. 특히 『태양의 권속』의 연재 시기를 감안

43 정희진 앞의 글, 36쪽.

44 황영숙, 「김말봉 장편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15호, 2004, 389쪽.

할 때, 소설의 결말은 ‘죽음마저 불사하는 아름다운 사랑’ 따위의 낙관적 전망으로 봉합되지 않는다. 『태양의 권속』 연재 초기, 김말봉의 아들은 한국 전쟁 속에서 전사했다. 박종화의 서문을 토대로 살펴볼 때⁴⁵ 최소한 『태양의 권속』을 연재 하던 당시의 김말봉에게 ‘참전’이란 정치적 의미보다 죽음이나 다름없는 선택으로 읽혔을 것으로 유추된다. 이는 상철의 편지에서 전쟁에서 죽음이나 불구가 될 가능성을 간과하지 않는 점에서 드러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상철과 신희의 사랑을 소재화한다는 점, 상철의 과거 일기를 읽음으로써 신희가 상철을 용서한다는 것은 유의미하다. 불가능한 사랑의 현실을 김말봉 뿐만 아니라 독자들 또한 알고 있지만, 신희가 내심 상철의 복귀를 바란다는 점에서 독자들 또한 그 마음에 동조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김말봉은 사랑 자체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한 비관적 의식 속에서도 사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김말봉이 인간의 사랑에 대한 열정에 많은 가치를 투사하고 있기 때문이며, 나아가 아나키스트의 관점에서 인간에게 사랑이란 본능이자 결코 포기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라는 정치적 의지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김말봉은 ‘기막힌 철학’과 ‘인생의 진리’가 있다 해도, 광범위한 독자층을 매료하지 못한다면 소설가로서 낙제라고 지적했다. 김말봉의 아나키즘적 실천으로서 대중소설 글쓰기는 인류의 진화를 통한 한반도 사회의 변화를 기대한 것이다.⁴⁶ 김말봉은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달을 위하여, 언제나 독자의 입장에서 문장을 써 나간 작가로 알려져 있다. 즉, 김말봉은 자신의 문장으로 독자를 사로

45 만고에 드문 한국의 동란 피투성이 된 제일선에서 붉은 공비와 더불어 민국을 위하여 용감하게 싸우고 있던 젊은 용사의 하나인 끝뫼 여사의 방년 이십이의 전영군이 엄숙하고 거룩한 전사를 하였던 것이다. 이 구슬프고 가슴 아픈 부음은 여사가 이 『태양의 권속』을 집필하기 시작한지 불과 며칠이 못 되어서 부산 남단 그의 자애스런 어머니의 가슴 속에 아꼈하고 한 많은 뜻을 박아 주었던 것이다. 박종화, 『태양의 권속』 1953년 삼신출판사본 序, 『김말봉 전집 10』, 진선영 편, 소명출판, 2021, 442쪽.

46 김태영, 「신문 소설의 백미」, 『김말봉의 문학과 사회』, 정하은 편, 종로서적, 1986, 25쪽.

잡은 후, 독자들 스스로 자기도 모르게 작가의 메시지를 내용을 소화하는 것이 그의 문장 비결이자 작가로서 글쓰기 방식이었던 것이다.⁴⁷ 아나키스트들은 무력보다는 이성을, 혁명보다는 진화에 의한 사회변화를 기대한다.⁴⁸ 이러한 점에서 김말봉의 글쓰기는 아나키즘 정치 및 사회관과 다시 조우한다. 아나키스트로서 김말봉의 소설들은 연애소설이라는 대중적 성격을 지니며 더 많은 독자를 확보하며 동시에 더 큰 정치성을 확보할 수 있다. 김말봉에게 대중성이란 정치성과 비례하며 그 토대로서 작용한 것이다. 그리하여 김말봉에게 대중성의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치적 의지의 표명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아나키즘이 김말봉의 대중소설을 읽을 수 있는 방법론이었다면, 김말봉의 대중소설은 역으로 김말봉이 살아온 세계를 재해석할 방법이 된다. 1930년대부터 특히 1950년대는 좌/우익이라는 이분화된 정치 체제와 사상에 갇혀 해석되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좌익, 남한은 우익이라는 도식 속에 시대에 대한 입체적인 조망은 불가능했고, 이는 궁극적으로 김말봉 또한 남한에 남은 기독교 신자라는 데에서 우익 인사라는 납작한 해석으로 이어졌다. 즉, 아나키스트로서 김말봉을 조명하는 것은, 김말봉을 다시 읽는 데에서 나아가 당시의 시대를 이분법을 넘어서는 관점에서 새로이 독해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하나의 틀이다. 나아가 ‘대중소설가’ 김말봉을 한반도 근현대사에 기입하며 그 의의들을 주목하는 것은 민중과 대중을 구분 지으며, 전자에만 진보와 정치로서 긍정적 의미를 부여함과 달리 후자에는 부정성을 부여한 기존의 의미에 균열을 낸다.

다양한 현대 담론들을 교차하는 아나키즘은 대중소설 작가로서 김말봉의 입지와 비슷하다. 아나키스트라는 정체성 위에 김말봉은 정치, 경제, 종교 등의 공적 영역에서부터 사랑, 결혼, 연애와 같은 사적 영역을 관통한다. 또한 순수 귀신을 배격하고 통속과 상업의 이름으로 비난받았던 대중소설을 격상시킨 김말봉은 기존의 문학사와 문학장의 담론들에 균열을 가한다. 이와 같이 김말봉이 지녔던 거대한 영향력은 그의 존재를 단지 하나의 작가를 넘어서 하나의 사건으로 위치

47 위의 글, 21쪽.

48 파괴의 미학을 예찬하였던 바쿠닌조차도 자의적 폭력과 모험주의적 테리에는 철저히 반대하였다. 크로포트킨은 언제나 무력보다는 이성을 선호하였으며, 혁명보다는 진화에 의한 사회변화를 기대하였다. 구승희·김성국 외, 『아나키·환경·공동체』, 모색, 1996, 23쪽.

지으며, 패러다임의 전환과 새로운 담론장의 활성화를 촉진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김말봉의 소설은 여전히 현재성을 가지며, 현재를 살아가는 대중 독자들에게 다시 읽힘을 통해 김말봉 사상으로서 아나키즘의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발견된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 김말봉, 『생명』, 문영각, 1966.
- _____, 「합장」, 『한국전쟁기 여성문학 자료집』, 역락, 2012.
- _____, 『김말봉 전집 1: 밀림 (상)』,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4.
- _____, 『김말봉 전집 2: 밀림 (하)』,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4.
- _____, 『김말봉 전집 3: 찔레꽃』,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4.
- _____, 『김말봉 전집 4: 가인의 시장 / 화려한 지옥』,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5.
- _____, 『김말봉 전집 5: 꽃과 뱀』,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6.
- _____, 『김말봉 전집 6: 별들의 고향』,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6.
- _____, 『김말봉 전집 7: 해방 전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8.
- _____, 『김말봉 전집 8: 해방기 단편서사 모음』,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18.
- _____, 『김말봉 전집 9: 태양의 권속』,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21.
- _____, 『김말봉 전집 10: 옥합을 열고』, 진선영 엮음, 소명출판, 2021.
- _____, 『푸른 날개』, 스토리클래스, 2017.
- _____, 「女流作家와 女人」, 『동아일보』, 1958.04.24.
- 「대중잡지의 현황과 진로 좌담회」, 『경향신문』, 1958.2.12

단행본

- 구승희·김성국 외, 『아나키·환경·공동체』, 모색, 1996,
- 군터 게바우어·스벤 뤼커, 염정용 역, 『새로운 대중의 탄생』, 21세기북스, 2020.
- 김택호, 『한국 근대 아나키즘문학, 낯선 저항』, 월인, 2009.

알버트 린데만, 오주환·진원숙 역, 『서양 사회주의의 역사』,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3.

에드먼드 윌슨, 유강은 역, 『핀란드 역으로』, 유강은 옮김, 이매진, 2007.

엠마 골드만, 김시완 역, 『저주받은 아나키즘』, 우물이 있는 집, 2001.

오드 아르네 베스타, 옥창준·오석주·김동욱·강유지 역, 『냉전의 지구사』, 예코 리브르, 2020.

자끄 엘뤼, 이창현 역, 『무정부주의와 기독교』, 대장간, 2011.

장 프레포지에, 이소희·이지선·김지은 역, 『아나키즘의 역사』, 자음과 모음, 2003.

정하은, 『김말봉의 소설과 사회』, 정하은 엮음, 종로서적, 1986.

진선영, 『한국 베스트셀러 여성작가의 러브스토리 코드』,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2020.

캔데이스 포크, 이해선 역, 『엠마 골드만: 사랑, 자유, 그리고 불멸의 아나키스트』, 이해선 옮김, 한얼미디어, 2008.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 이용재 역, 『소유란 무엇인가?』, 아카넷, 2013.

하세가와 쓰요시, 한승동 역, 『종전의 설계자들』, 메디치, 2019.

E.H.카, 이태규 역, 『미하일 바쿠닌』, 이매진, 2012.

William O. Reichert, *Proudhon and Kropotkin on church and state*, A journal of church and state 9;1, 1967.

논문

노경덕, 「제 1차 세계대전 말 유럽의 국제정치와 민족자결주의」, 『역사비평』 제 245호, 2020, 33-62쪽.

서정자, 「김말봉의 『밀림』 재론-아나키즘과 기독교정신 구현 방식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제 49호, 2020, 172-208쪽.

_____, 「김말봉의 대중소설 『찔레꽃』의 사상-히트먼과 아리시마 다케오, 그리고 아나키즘」, 『여성문학연구』, 제 51호, 2020 170-198쪽.

연남경, 「현대비평의 수립, 혹은 통설의 탄생」, 『한국문화연구』 제 36호, 2019, 39-78쪽.

- 장두영, 「김말봉 『밀림』의 통속성」, 『한국현대문학연구』 제 39집, 2013, 317-350쪽.
- 정병준, 「大韓民國臨時政府의 戰後構想과 還國」,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52호, 2015, 177-210쪽.
- _____, 「한국 농지개혁 재검토-완료시점·추진동력·성격」, 『역사비평』 제 65호, 2003, 117-157쪽.
- 정혜정, 「식민지 조선의 러시아 사회주의 수용과 동북아 연대」, 『탈경계인문학』 제 27호, 2020, 145-174쪽.
- 정희진, 「김말봉의 짙레꽃 연구-서사기법과 독자 흥미유발요소를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조세현, 「동아시아 3국(한,중,일)에서 크로포트킨 사상의 수용」, 『중국사연구』 제 39호, 2005, 231-273쪽.
- 조석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제적 평등에 민족국가 수립의 꿈과 좌절」, 『국제경상교육연구』 제 6권 4호, 2009, 87-113쪽.
- 하영진, 「샤를 푸리에의 유토피아」, 『현대사상』 제 5호, 2009, 19-38쪽.
- 황영숙, 「김말봉 장편소설연구」, 『한국문예비평연구』 제 15호, 2004, 377-406쪽.